

# 부모 감정대화 스타터

아이의 마음을 **평가하지 않고** 여는 대화 문장이에요. 답을 맞히는 질문이 아니라, 아이가 **본 것·느낀 것**을 스스로 말하도록 돕는 말이에요.

## 관찰을 여는 말

- “ 오늘 가장 오래 한 건 뭐였어? ”
- “ 아까 그거 할 때 어떤 느낌이었어? ”
- 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대로 얘기해 줄래? ”

## 마음을 묻는 말

- “ 그때 마음은 어떤 색 같았어? ”
- “ 몸은 어땠어? (간질간질·콩닥콩닥...) ”
- “ 비슷한 기분 또 언제 들었어? ”

## 함께 잇는 말

- “ 다음엔 어떻게 해보고 싶어? ”
- “ 내가 옆에서 뭘 해주면 좋을까? ”
- “ 오늘 네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워. ”

🌱 **팁:** “왜?”는 아이를 방어하게 만들 수 있어요. “무엇을·어떻게·어떤 느낌”으로 물으면 이야기가 더 열려요. 들은 이야기는 그날 관찰일기에 한 줄로 남겨보세요.